무엇부터 즐길까 … 문화나들이 '행복한 고민'

ACC 빅도어 시네마, 아시아 놀이 즐기기
전통문화관 14~15일 강강수월래·전통춤
시립창극단 11일 한가위 국악한마당
디자인비엔날레·시립미술관 전시 풍성

강강술래

마술 퍼포먼스 '신의 손'

어린이 창작공연 '용감한 탄티'

공연·행사

올해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전통체험과 공연, 영화 상영 등 콘텐츠로 시민들을 맞는다.

ACC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문화원에서 '2019 한가위 한마당-보름달 아시아'를 개최한다. 윷놀이, 투호, 라리까유(인도네시아 전통놀이) 등 아시아 전통놀이·문화 체험, 평화 기원 연을 제작하고 한지로 보름달을 만드는 창작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또 마술 퍼포먼스 '신의 손', 퓨전국악 '한가위풍류' 등 공연이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 열리며, 어린이극장에서는 '점박이' 등 어린이 애니메이션도 상영된다.

방글라데시 민담을 소재로 한 어린이 창·제작 공연 '용감한 탄티'도 12~13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어린이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석 5000원.

야외 대형 스크린 영화상영 프로그램 '빅도어시네마'도 12~13일 '추석 특집 콘서트'를 개최, 영화 '브라보 재즈 라이프'(12일), '위플래쉬'(13일)를 상영한다. 남무성 영화감독과의 토크 콘서트, '위플래쉬 프로젝트 밴드'의 라이브 공연도 진행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4~15일 전통문화관 너덜마당에서 '2019 한가위 전통문화관으로 달맞이 가자' 행사를 연다. 토요상설공연(14일)에서는 실제 부부를 초청해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창작마당극 '연지곤지'와 전통춤, 국악가요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일요상설공연 '한가위 무등놀이'(15일)에서는 '한가위 놀이터', '강강수월래', '흰달잔치' 등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한가위 국악한마당'도 11일 오후 3시, 5시 유·스퀘어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해 광주 무등산 호랑이를 형상화한 탈을 쓰고 펼치는 '사자춤' 공연, 판소리 '흥보가'를 각색한 단막창극 '화초장', 전통춤 '교방무'를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시립예술단과 광주지역 국악단체가 매일 오후5시 광주공연마루(일·월요일 제외)에서 펼치는 '광주국악상설공연'도 오는 11·14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11일)가 전통무용 '살풀이', 판소리 '수궁가' 중 '좌우나졸', '태평소와 사물놀이'를 공연하고, 판소리 '춘향가' 중 '산세', '사랑가', '쑥대머리' 등을 퓨전국악 무대로 선보인다. 창작국악단 '도드리'(14일)는 창작국악가요 '아리랑 광주'를 '태권무'와 함께 선보이며 국악관현악 '죽향풍월', 국악가요 '가을산책', '상모' 등을 무대에 올린다. 무료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13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특별공연 '달빛 속, 맛난 국악'을 개최하며 각종 먹거리 부스와 함께 떡메치기, 전통팔찌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등 체험 행사도 오후 5시 30분부터 진악당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무료 관람.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 행사도 볼거리다.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0월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ACC, 광주디자인센터, 은암미술관 등지에서 열린다. '휴머니티(HUMANITY: Human+Community)'를 주제로 50개국에서 디자이너 650여명, 기업 120여개가 참여해 선보이는 1130여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립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맛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맛있는 미술관'전, 의재 허백련 선생과 연진회 회원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의재, 산이 되다'전 등 전시 행사가 열린다. 하정웅미술관에서는 남도수묵화협회 회원들의 개성있는 작품들이 내걸린 '남도수묵화'전 등이 열리며, 광주문화예술회관 사진전시관에서는 김심훈 사진가의 '누정, 선비의 풍류를 머금다'전이 펼쳐진다. 또 시립미술관 옆 잔디광장에서는 14일 오후 2~6시 '아트피크닉'이 열려 선착순 접수된 열두 가족이 '가족대항 윷놀이대회'를 벌인다.

또 ACC에서는 수공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조각을 통해 현대 조각의 예술성을 바라보는 '공작인'전(문화창조원 복합3, 4관), 말레이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 '팝 누산타라 노래들'(라이브러리 파크) 등 전시가 진행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13일 휴관) '2019 한가위 우리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12일 오후 1시 가족 영화 극장 '알라딘', 오후 4시에는 '레이디와 트램프'가 이어진다. 14일에는 어린이 공연 '판타지 더 판타지쇼'(오전 11시), 역사인물체험 '오이지(Oh easy)와 함께 하는 조선시대 여행'(12시~오후 3시), 가족영화극장 '쿠스코? 쿠스코!'(오후 1시), 한가위음악회 '아카펠라 그룹 '두왑사운즈''(오후 4시)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가족영화극장 '마이 펫의 이중생활'(오후1시), '스폰지밥 극장판'(오후4시)이 펼쳐진다. 한가위 우리 문화 마당은 무료로 진행되며 '판타지 더 판타지쇼', 한가위음악회 '아카펠라 그룹 '두왑사운즈''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는 연휴 기간 마술세계로 떠나는 동심여행, 특선영화 상영, 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마당이 펼쳐진다. 13일은 휴관.

먼저 12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는 코믹저글링, 코믹마임, 벌룬쇼 공연을 조합한 '마술세계로 떠나는 동심여행'이 진행되며 14일 오전 10시에는 블록 체험전 '브릭월드'가 예정돼 있다. 15일은 특선영화 상영과 전통음식체험이 펼쳐진다. 오후 1시에 '스파이더맨: 뉴유니버스'가 상영되며 오후 2시부터는 앞마당에서 전통음식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떡메치기 체험 후 인절미 시식이 이어지며 선착순 400명에 한정한다. 이밖에 휴관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상모돌리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통혼례 재현

창작국악단 '도드리'

국립광주박물관 '우리 문화 한가위'

국립광주박물관 12~15일 '우리 문화한마당'
'알라딘' '스폰지밥 극장판' 등 가족영화극장
국립나주박물관 특선영화·민속놀이 풍성
마술·전통음식 시식·제기차기·팽이치기 등